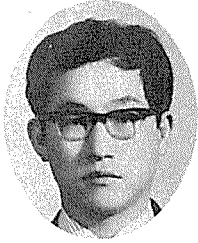


— 精油社는 이렇게 생각한다 —

世界 原油情勢와 韓國



金 年 泰

(大韓石油公社·原油部長)

1. 序 言

世界 原油市場이 급변하고 있다. 한 때는 物量이 부족하여 값은 제쳐두고 物量確保가 최대관건이었던 반면에, 현재는 物량은 풍족한데 값이 비싸 生産者와 消費者가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러나 現供給過剩이 構造的인 必然性에 기인함이 아닌데에 問題가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供給過剩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바람직하겠지만, 큰 試練을 目前에 둔 일순의 반짝이라면 그 실상을 파악하고 서둘러 對策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 이래 오늘까지의 길을 더듬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길을 헤아려 볼 수밖에 없다.

2. 供給過剩의 胎動과 展開

現供給過剩의 發端은 어디에서 始作된 것인가? 그 解答은 産油國의 일방적인 減産과 이에 便乘한 價格爆騰에 對하여 나타난 消費國의 消費構造改編을 中心으로 한 需要減少 및 消費節約 노력과 産油國의 減産 企圖를 조급이라도 막아 보려고 쌓아둔 儲藏在庫의 放出으로 크게 압축된다.

78년의 이란革命을 고비로 79년 이래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산유량은 계속적인 下向曲線을 그려왔고, 급기야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自由世界는 400만 B/D의 공급량을 잃게 되었으며, 이에 便乘하여 石油價格이 爆騰하는 불안속에 소비국은 自活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이란革命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

한 소멸분을 사우디의 증산과 기타 OPEC국의 도움으로 79, 80년도에 物量상 需給均衡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힘입어 소비국은 이란-이라크戰의 확대가능성과 사우디가 언제 감산할지 모르는 不確定性에 대비하여 儲藏在庫의 증장에 집중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유세계의 原油在庫는 계속 증가하여 79년초 50억 배럴에서 81년초 58억 배럴로 크게 변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 OPEC은 原油價格을 배럴당 40달러를 最高上限線으로 基準原油 사우디 輕質油의 가격을 배럴당 36달러에 묶는 油價의 대대적 引上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사우디가 이에 반대하여 자국산 원유가를 배럴당 32달러에 고정안착으로 油價單一化를 이룩하고자 最大生産을 유지, 他OPEC에 價格引下를 容許하면서 81년을 맞이하였다.

81년에 들면서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予想하고 對策해온 불안과는 달리 깊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休戰樣狀으로 변모하고 戰費조달을 위한 이란-이라크의 수출재개와 油價單一化를 실현하려는 사우디의 增産體制 維持로 減産의 불안이 가신채 원유시장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高油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소비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안겨준 충격을 자체 소화시키기 위해 燃料油의 경우, 天然가스, 석탄등 代替源 사용을 위해 發電設備등을 改造 20% 가량의 需要를 감소시키는 등의 전반적 需要減少를 실현하였으며, 그 위에 소비절약으로 대처하였던 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높은 在庫維持負擔을 輕減해야 할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나아가 原油價 引下를 誘

導하기 위해 약 200만B/D의 원유를 재고에서 放出하게 되어 오히려 공급량은 100만B/D 이상의 過剩事態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Major와 Trader들의 石油事業 缺損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재고의 대량반출이 원유시장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었다.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이 저렴하고 잦은 원유가격 인상이 盛行하던 시기에 Major나 Trader들은 원유를 구매 비축하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되팔아 상당한 價格差를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었으나, 80년 이후 油價가 1년에 한 두번 그것도 소폭으로 인상되는 상황하에선 되팔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在庫維持負擔이 價格差額을 오히려 웃돌아 무작정한 재고의 유지란 그 의미를 잃게 된 것이며, 在庫維持費가 年평균 배럴당 7~8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소비국이 이같이 재고를 방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되는 不荒과 消費構造改編으로 油類需要가 크게 감소하고 감소하는 폭만큼 재고로 쌓인 것에 기인하였다. 실제로 소비국은 수요에 있어 79년의 5,130만B/D에서 81년도 4,600만 B/D로 수요를 대폭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現物市場에서의 원유가격을 하락시켜 급기야는 公示價를 밀도는 사태로 발전하였으며, 소비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實力行使를 가능케 하였다.

3. OPEC의 反應

供給過剩으로 인한 公示價의 引下壓力에 對항하여 OPEC은 대폭적인 감산으로 맞섰던 바 79년의 3,200만 B/D에서 81년의 2,250만B/D로 대대적인 감산을 강행하였으며, 夏節期의 非需期엔 2,000만 B/D까지 감산을 甘受해야 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OPEC에 더욱 심각하여 450만B/D를 생산하던 과거에 비하여 200만B/D 이하로 줄여야만 하였고, 中東의 쿠웨이트 또한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산하는 고역을 현재에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出血努力도 사우디의 協助가 없이는 實效를 거둘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우디까지도 油價單一化 이전에 이미 950만B/D 선으로 일부

後退해야만 하였다. 결국 OPEC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財政的인 면에서의 最低生産 限界線 2,000만 B/D도 깨질 우려가 있음을 認識하고 사우디와 소비국의 압력에 굴복, 油價를 인하, 基準原油價를 34 달러로 最高上限線을 37달러로 하여 82년 말까지 凍結할 것을 골자로 하는 油價單一化를 이룩하였다.

유가단일화가 이루어진 직후 원유시장은 약간의 활기를 띠고 반짝하였으나, 82년 들어 예상과는 달리 수요가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감소 일로에 있게 되어 現物市場價格은 公示價를 7~8 달러 밑도는 사상초유의 기록을 보이면서 시간이 거듭할 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OPEC은 유가를 더욱 인하시켜 需要를 創出하든지 아니면 34 달러 價格體制를 고수하기 위해 추가감산을 하든지 攄一해야만 하는 岐路에서 後者를 택하게 되어 最初로 생산쿼터량을 設定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OPEC이 생산쿼터안을 攄一하게 된 背景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배경이 82년의 原油需給을 점치는 중요한 指標가 되기 때문이다. 배경은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도 이미 방만했던 消費構造를 정리하고 需要增加를 억제하고 있는 소비국의 실정에 비추어 당장의 刮目할 만한 수요의 급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해도 현재 保有하고 있는 재고를 처분한 후에야 가능할 것인 바, 적어도 3~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후라면 수요는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과 現상황에 執着하여 油價를 인하할 경우, OPEC의 損失만 증가할 뿐 아무런 利益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OPEC은 완전한 生産카르텔로 定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을 요약하면 아래의 原油需給變動表과 같다.

◇ 原油需給變動推移

(單位：만BPD)

	79	80	81	82
供給	5,240	4,890	4,490	?
OPEC	3,200	2,680	2,250	?
非OPEC	2,040	2,210	2,240	2,200
需要	5,100	4,840	4,600	4,450
過(不足)	140	50	(110)	?
在庫變動 (億배럴)	50	55	57	53

4. 82年의 需給展開

그러면 82년의 原油需給狀況은 어떠한 것인가? 1/4분기의 実績을 보면, 물량상 약 30만B/D가 不足하나 在庫放出 약 200만B/D로 오히려 150만B/D 가량 供給過剩인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82년의 需給予測은 81년 보다 더욱 감소된 4,450만B/D로 잡고 있으며, 이 경우 非OPEC의 供給分을 81년 수준으로 가정할 때, OPEC의 供給量은 2,250만B/D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在庫放出로서 1/4분기 供給過剩이 持續되고 있어 그 持續如否에 따라 사태는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自由世界가 언제까지 在庫를 放出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열쇠가 된다. 81년말 재고가 53억배럴인 바, 82年末 在庫를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 만일 79년초 수준에 맞춘다면 약 3억배럴의 可用在庫를 갖게되며, 이를 1/4분기 수준으로 放出할 경우, 길어야 2/4분기 말까지면 더 이상의 방출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盛需期를 대비 재고를 補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4분기 이후 OPEC은 상당량의 生産增加를 이룩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2,500만B/D 선을 維持해 주어야 自由世界の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을 것이며, OPEC의 財政維持線 2,200만B/D 또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需給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으로 追加需要가 발생할 경우, 사우디의 增産이 없이는 供給不足을 면할 길이 없으며, 價格또한 덩달아 뛰어야 한다는 狀況展開가 予想된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現物市場에서 작은 바람이 되어 서서히 反映되고 있는 듯 하다. 終前의 스파트價格이 원유시장을 分析하고 점치는 중요한 指標가 되어 왔던 반면, 현시점의 스파트價格은 마지 証券市場와도 같아 題材의 경우, 값이 주춤하고 好材의 경우 삼시간에 값이 爆騰하는 $Y_0 - Y_0$ 와 같은 운동을 하며 일시에 売物이 사라지는 奇現象을 보이고 있다. 前記한 一聯의 흐름으로 판단할 때 3/4분기 부터 원유 需給狀況은 均衡을 이루어 4/4분기에 다소 惡化될 것이며, 83년초 OPEC의 主안점은 價格을 올리려는 매파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비둘기파로 再分裂하여 입씨름을 벌일 것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可變要因도 많아 자유세계의 在庫水準을 50억 배럴 이하로 유지할 경우, 다소 완화될 余地가 있는 반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불화, 이란-이라크戰의 확대등 굵직한 癈的 要因이 많아 石油市場構造가 일시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다고 하겠다. 여기까지의 82년 수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82年 原油需給 展望

(단위: 만BPD)

분 기	1/4	2/4	3/4	4/4	計
供 給	4,070	3,880	4,710	4,800	4,360
OPEC	1,940	1,750	2,470	2,560	2,160
非OPEC	2,130	2,130	2,240	2,240	2,200
需 要	4,100	4,100	4,800	4,800	4,450
在庫放出	170	170	—	—	85
過(不足)	140	(50)	(90)	—	(5)
月初在庫 (億배럴)	53	51.5	50	50	50(期末)

5. 長期展望과 反響

한편 長期的 原油需給展望도 그다지 밝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세계 원유埋藏量은 30년분에 해당하는 有限性を 고려할 때, 85년 이후부터 物量確保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90년경이면 構造的인 物量不足事態에 直面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값은 비싸져야 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참고로 美國의 議會資料를 보면, 85년 이후 350만B/D 에서 2,500만B/D까지 供給不足이 가능하다는 予想이다. (아래表 참조)

◇ 世界 原油 需給展望

(단위: 백만배럴)

	1,985	2,000
供 給	47.1-59.5	40-61.5
O P E C	28.5-35.0	27.0-37.0
非O P E C	20.5-24.5	15.0-24.5
C P E 輸出	(1.9)-0	(2.0)-0
需 要	55	65
過 (不 足)	(7.9)-4.5	(25)-(3.5)

C P E : Centrally Planned Economics

이에 消費国은 닥쳐오는 위협에 대비하여 消費構造를 再整備, 소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石炭을 중심

으로 하는 에너지 供給構造를 굳혀가고 있으며, 合成燃料開發(원유 현물가 하락으로 주춤한 형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면 代替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代替源의 多量生産 및 商品化에 의 길은 아직은 먼감이 있고 石炭, 原子力, 오일세일 사용에도 문제는 있어 大氣汚染, 放射能汚染, 노천굴에 의한 地殼變動 등 生態界를 깨뜨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向後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合理的인 供給 Mode를 마련하느냐에 歸着될 것으로 전망된다.

6. 国内 政策 再考

이제 눈을 돌려 内部的인 문제를 診斷해 보자. 세계적 經濟不況의 바람은 한국에도 예외없이 불어닥쳐 精油社는 쌓이는 在庫의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현재 국내의 確保物量은 61만B/D로 投入量에 비해 물경 10만B/D 이상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最終消費者는 물량은 남아도는데 값은 떨어질 줄 모르는 經濟原則이 무시되고 있다 하여 속사정을 모르고 政府와 精油社에 깊은 疑惑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종전의 油價平準化制度를 폐지하고 세계 원유시장의 油價單一化가 이루어졌음과 供給過剩의 이유를 들어 油價自律化制度를 도입 低價原油의 구매를 촉구하고 供給線을 多邊化하여 저가제품 공급과 中東依存度를 輕減코자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할 일이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정부가 構想하고 있는 油價自律化란 原油 및 製品을 實需要者가 任意選擇하여 도입하고, 국내 製品 供給額도 自律策定에 맡겨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賦存資源이 빈곤하고 어쩔 수 없이 해외자원 특히 원유에 의존해야만 하는 韓國의 경우, 油價自律化 이전에 大前提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야 하며, 그 위에 세계 원유시장의 價格決定이 현재의 質뿐만이 아니고 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완전 일원화가 되었을 때에야 소위 自律化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둘중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自律化를 강행코자 하는데에 불안이

앞서는 것이다.

기업은 企業 고유의 利益問題와 관련 死活을 전 싸움에서의 勝利를 위해서는 競争度가 높은 원유나 製品을 당연히 도입할 것이란 理論에 근거한 듯하지만, 이는 現實안 直視했을 뿐 장기적인 대책엔 미흡하다. 만일 現상황하에서 自律化가 실현되었을 경우, 企業은 당장의 싼 원유시장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高價의 계약분 도입을 회피할 것이며, 원유보다는 製品市場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當장 契約分을 파기해야 한다는 평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스파트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량의 5~10%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저렴한 원유를 도입하고자 해도 韓國 또한 이 선을 벗어날 수 없으며, OPEC 자신이 流通構造의 완전장악을 추진하는 이 마당에 스파트량의 증가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파트 가격이 전통적으로 公示價보다 비쌌다는 과거의 실적과 원유시장의 基本的生理(構造의 物量不足)를 감안한다면 스파트를 意識하는 政策이란 위험스런 발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는 원유로써는 採算이 안맞는 저급 제품을 실수요자가 도입 充足시킨다 하면, 원유를 도입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死藏되어야 하는 바 하나의 수요를 충족키 위해 둘을 도입하는 愚를 범해야 하는 위험외에도 實需要者 누구나가 도입할 수 있음으로 精製施設을 본의 아니게 공전시켜야 하고 또한 제품시장이 원유시장과 관련 騰落이 원유보다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족한 제품의 가격이 등기할 때 재빨리 원유로 交替해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병폐가 남게 된다.

셋째는 향후의 原油供給이 구조적 물량부족 상황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란 점이다. 우리가 소요로 하는 양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產油國이 불과 4~5개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韓國은 더욱 더 產油國에 密着해야 하며, 목전의 이익을 위해 產油國과 등을 지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고, 정부가 百年大計를 위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평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国内需要의 最低線만큼은 장기 계약분으로 묶어야 하며, 장기계약분과 소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 계약에서부터 각 精油社에의 안배

長期供給可能國 現況

産油國別	埋藏量 백만배럴	'80生産量 천 배럴
사 우 디	165,000	9,630
쿠 웨 이 트	64,900	1,380
이 란	57,500	1,460
U A E	30,400	1,700
이 라 크	29,700	1,000

에 까지를 총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현 물시장, 제품시장에서 原油市場으로 들락날락하는 외출을 타는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와 並行하여 製品의 輸入에 있어서도 精油社를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는 窓口의 일원화가 補完되어야 過多輸入을 예방하여 외화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製品價算定에 있어서도 국내 精油社가 불과 5개 뿐임을 고려해서 정부가 방임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統制機能을 살려 나가 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變形自律化만이 가능하며 스파트시장이 싸다고 해서, 産油國 一方의 需要供給과는 무관하게 책정된 油價單一化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장 自律化를 실시, 값싼 제품을 공급코자 함은 더 큰 희생이 뒤따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供給先多邊化란 그 기본의미가 中東依存度를 경감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다방면에 分散시키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산유국별 輸出량을 볼 때, OPEC이 세계 전체량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中東 OPEC 60%) 충분한 양의 장기공급 가능국이 中東에 편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수출점유율 20%) 原油가 원거리, 가격, 질에 있어 문제가 있음으로 이를 中東에서 추가로 구할 때, 韓國의 中東의존도는 80%선을 유지해야 正常이며, 단순한 수치에 의거 60%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에는 또한 위험이 따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供給先을 多邊化 해보아야 中東 OPEC 물량이 中斷될 경우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소요량의 확보를 위해 主要 소비국은 中東外市場에 진

출해야 하며, 이 경우 힘과 자본만이 武器가 될 것 인바 물량확보의 보장이 회박하게 되어 위험분산이 란 기본목적을 기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地域別多邊化는 再考되어야 하며, 장기 공급이 가능한 國家別로 供給先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産油國의 공급능력을 파악하고 장기정책을 분석하여 산유국별로 물량을 安配할 필요가 있으며 多邊化의 의미에만 執着하여 韓國의 실정에 맞지않는 원유를 구매하는 愚와 실적위주의 供給國數를 늘리는 정책입안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上記의 어느 것도 根治를 위한 방안으로 는 크게 미흡하다. 原油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원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깨끗이 해결될 수 있 나는 간단명료한 논리대로 서둘러 에너지源을 다변 화하고 원유의존을 경감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油價自律化, 供給先多邊化에 우선하여 原油依存度의 輕減만이 문제해결의 捷徑임을 알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소비절약, 소비구조 개편에 집중투자해야 함을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며 장기공 급이 가능한 국가를 末尾의 表로 남겨 독자의 이해 를 돕고자 한다. *

● 石油用語解説 ●

하이 어브저버 · 로 어브저버

OPEC(石油輸出國機構) 회원국 가운데 工業化등으로 石油收入을 다쓰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다. 석유수입이 남는 나라를 로 어브저버(low absorber), 다쓰는 나라를 하이 어브저버(high absorber)라고 한다. 로 어브저버

인 나라에는 오일달러가 쌓이게 되어 세계通貨機構를 불건전하게 한다. 때문에 산유국간에는 석유의 생산수준을 낮추려는 압력이 가해지 기도 한다. 소비국쪽에서는 로 어브저버의 剩餘 달러를 還流시키려 애쓰고 있다.